

# 매년 계획만 세우고...5·18 사적지 정비 담보 '되풀이'



## 2 사적지 제대로 보존·활용하자

광주시가 5·18의 전국화·세계화를 내세우면서, 정작 광주 밖에서 찾아온 방문객에게 보여 줄 5·18 사적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사적지 보존·활용을 위한 사업 계획만 세웠다가 예산 부족 등 이유로 사업이 정체되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지난해 수립한 '5·18 사적지 보존 및 활용 중·장기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광주시에는 총 29곳의 5·18 사적지가 있다.

광주시는 이 중 옛 광주교도소 부지, 5·18묘지, 홍남순 변호사 가옥, 505보안부대, 옛 광주 적십자병원, 국군광주통합병원 등 6곳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두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정비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된 곳은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없다.

홍남순 변호사 가옥(사적지 29호, 동구 공동)은 당초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사유지 매입 관련 협의가 늦어진다. 아직까지 내부 콘텐츠도 미처 준비하지 못해 완공 시점을 5개월여 늘렸다. 그나마도 가옥 마당 일부만 사유지는 미처 매입하지 못해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허술한 정비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윤석열 전 정부가 약속했던 1400억원 규모의 옛 광주교도소(사적지 22호·북구 문흥동) 민주인권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 부지는 당초 기획재정부 소유로, 기재부는 이

옛 교도소부지·505보안부대 등 우선 정비 6곳 마무리된 곳 없어 민주인권평화공원 조성 지시부진 홍남순 가옥도 지연돼 10월 개관

국군광주통합병원, 폐건물 방치 사적지 23곳 표지석 정비에 그쳐 국가사적지 승격, 체계적 관리

곳을 선도사업지로 지정하고 민간 개발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세웠다. 이에 지난 2021년 5·18 단체로부터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장소를 수익성이 짙은 아파트 건립 사업지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이후 광주시는 4년 동안 해당 부지를 선도사업에서 제외시키고 행정안전부 주도로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반복하고 있다.

또한 505보안부대(사적지 26호·서구 화정동)는 지난 2023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시설물 활용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예산 57억원을 투입해 '기억의 공간'을 만들기로 했으나, 공사 과정에서 사적지 일부를 훼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보완 설계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

옛 광주 적십자병원(사적지 11호·동구 불로동)에 대한 활용 방안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지난 2020년부터 5년 넘게 라키비움, 현현의 집, 문화에 솔장작소, 청년 공간 등 활용 방안 논의만 공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오는 2027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매입 당시 예상된 175억 원보다 훨씬 많은 29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이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29호인 광주시 동구 공동 고(故) 홍남순 변호사 가옥이 정비 공사로 인해 출입 통제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옛 국군광주통합병원(사적지 23호·서구 화정동)은 폐건물에 울타리만 둘러놓은 채 방치되고 있다. 지난해 병원 건물 인근에 '화정근린공원'과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가 들어섰음에도 별다른 활용 방안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5·18묘지(사적지 24호·북구 망월동)는 오는 6월까지 건축기획영역을 거쳐 2027년께 착공할 예정이나, 효용성 논란을 안고 있는 국립5·18민주묘지와 구묘역 간 지하도로 개설안 등 아직 구체적인 조성 방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나머지 23곳의 사적지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 정비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별다른 활용 방안을 모색하지도 않고 '표지석 정비'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광주시 사적지로는 지정돼 있는 것을 '국가 사적지'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광주시에서는 해마다 예산 부족으로 모든 사적지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폭력'에 의해 발생한 사건인 터라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매년 사적지 관리를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비로 추진하라'는 답만 돌아오는 상황이다"며 "5·18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다.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사적지 관리에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아들에게 광주정신 알려야죠”...5·18묘지 참배 발길 줄이어

폭우 속에도 가족 단위 방문 북적 한강 인기에 전국적·세계적 관심 프랑스 등 외국인 참배도 잇따라

5월 첫 날부터 국립5·18민주묘지에 '5·18 정신'을 체감하고 싶어 찾아온 참배객들이 북적이고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고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책 '소년이 온다'를 쓴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하는 등 5·18에 대한 전국,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5·18민주묘지 참배객도 늘어나고 있다.

1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에는 폭우에도 오전에만 150여명이 방문하는 등 자녀와 함께 방문한 가족 단위 참배객부터 타 지역, 해외

에서 거주하는 참배객들까지 발길이 이어졌다.

이일권(61·북구 용봉동)씨는 "5·18 당시 고2 학생으로서 5·18을 생생하게 봤고 살아남은 부채 의식으로 5월이 되면 돌아가신 영령들을 마주하고 싶은 생각으로 방문한다"며 "지난해 12·3계엄과 5월의 기억이 연결돼 있어 올해 더 오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순애(여·52)씨는 자녀 홍순준(12)군과 서울에서 마주 친척집을 방문하면서 5·18묘지를 찾았다. 김씨는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올해 5월에는 대표작 '소년이 온다' 배경이 되는 광주에 와서 5·18묘지를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학교 친구들과 함께 5·18민주묘지를 찾아 단체 참배를 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이현준(13·보성중 1년)군은 묘지 해설사의 설명을 듣다 혼자 묘지를 천천히 둘러봤다.

이 군은 "민주주의를 지켜 준 이 분들 덕분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감사하고 미안하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해외 참배객도 적지 않았다. 보름동안 한국 여행 중이라는 프랑스인 로맹(Romain)·브루노(Bruno)씨는 가이드북에서 5·18 역사를 접하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왔다.

브루노씨는 "한국 민주화의 상징인 광주를 와 보니 그 때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며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니, 묘지를 둘러보며 슬픈 마음을 억누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국립5·18민주묘지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5월에 참배를 하고 싶다는 이들이 폭증해 인터넷 예약을 받지 않고 전화 신청만 받고 있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5월 첫 주말 광주 5·18 기념행사 풍성

외국인 3명의 목격 담은 전시 부마재단과 5·18 가족캠프도

광주의 5월 첫 주말을 앞둔 가운데, 지역 곳곳에서 5·18과 관련한 기념행사가 풍성하게 열린다. 기획전을 비롯해 강의, 교류행사 등 5·18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2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열리는 전시 '증인: 국경을 넘어'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체류했던 10대~30대 외국인 3명(데이비드 돌린저, 아놀드 피터슨, 제니퍼 헨틀리)이 목격했던 광주항쟁을 담은 전시로, 전일빌딩245 5·18기념공간 기획 전시실에서 진행한다.

전시는 '푸른 눈의 이웃'이라는 주제로 증언자 3인을 소개하는 1구역, '10일간의 일지'라는 주제로 외국인들이 경험한 광주항쟁을 사진과 AI영상으로

구현한 2구역으로 나뉜다. 3구역 '오월 이후'는 5·18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광주의 진실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자료를 전시한다.

이어 3일에는 5·18민주화운동 교육관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이 주관하는 교류행사 '부마재단과 함께하는 5·18 가족캠프'가 열린다.

지난해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서 진행한 민주교육 '부마에서 광주로' 수강생들 중 가족 단위 교육생(총 40명)이 1박 2일로 진행되는 현장 답사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5·18민주묘지를 투어한 뒤 자유공원(5·18교육관) 등을 돌아보고 서부원 강사의 강연 '5·18민주화운동은?' 등을 듣게 된다. 이외 오월지기 해설사와 함께 전일빌딩245, 5·18기록관, ACC 탐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더스트리계 법인설립  
2011 수출액만발달,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요별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